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헌

발행인 : 신성중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0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오늘 공동의회 개최

20명 장로 선출 위한 투표
4부 예배 후 본당서 실시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26대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가할 자격이 있으며, 당선자는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미 지난 2월 2일자 주간충헌 4면에 39명의 후보자 명단이 공고되었으며,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20명만 뽑게 된다.

투표에 참가한 세례교인들은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골라 투표하고, 20명에게만 "○"를

하되, 20명을 초과할 때에는 무효 처리가 된다. 그러나 20명 이하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피택자 명단은 오는 23일자 주간충헌에 게재하고, 예배 시간에 당회장이 공포할 예정이다.

목회자세미나 3월 9일 개강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가져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 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제4학기가 오는 3월 9일 개강한다.

"신학과 성경 연구"라는 주제로 4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되는 이 세미나를

통하여 목회자들은 자기 개발과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강의 시간은 제1교시가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이고, 2교시는 2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이다.

청년1부 특강
"기독교 청년의 이성 교제"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김찬곤 목사)는 오늘(16일) "기독교 청년의 이성 교제"라는 제목으로 이병각 목사를 강사로 청빙하여 교육관 514호에서 회원 특강을 개최한다.

올들어 처음 실시하는 특강은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청년 시절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이성 교제에 관하여 그 주제를 잡았다.

전도 특강
테이프 보급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7일 실시한 안장자 집사의 전도 특강 내용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만수 선교사의 보고 내용을 담은 테이프도 함께 나왔다.

카메라 초점



▲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제직사경회

성경연구원 3월 3일 개강

성경연구원의 92년도 강의가 오는 3월 3일 저녁 7시에 베다니 홀에서 개강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다.

성경연구원은 많은 성도들이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주간성경공부를 통하여, 진리의 말

씀에 근거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성경연구원은 5월까지 진행된 다(일정은 3면에 게재).

전도대원모집

· 목적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일꾼을 훈련시켜 현장에 파송한다. 이들을 통하여 개인 전도는 물론 특별히 설정된 목적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새로운 구역(성경 공부 모임)을 개척한다.

· 훈련내용 : 전도의 동기 부여, 찬송 및 기도 훈련, 현장 전도 방법, 구역 신설 방법

· 훈련기간 : 3월 4일(수)~4월 29일(수)
(8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10시 30분)

· 모집기간 : 2월 16일(주일)~3월 4일(수)

· 모집대상 : 영혼 구원과 구역 개척의 사명감을 가진 성도
70인전도훈련을 받은 성도 전원

· 등록비 : 만원

· 등록처 : 사무국(교육관102호)

· 문의 : 사무국, 전도위원회 사무실(선교관405호)

전도위원회

충헌프리즘

◎...우리 교회 당회 산하엔 많은 기관과 부속실, 소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내용들이 벽보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공지되고 있다.

그런데 한정된 게시판에 이를 수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게시판에 붙인 벽보는 교회가 지정된 용지(규격 사이즈)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무

국 통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

온 교회 성도들에게 알릴 공지 사항은 사무국에서 게시물 부착 허락을 받고 하되, 규격 벽보 용지를 사용하여 시각의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기독교 문화 형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요즘을 우리 교회 예배당 및 교육관 내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아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 차다.

24시간 연속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교회 학교 교사들의 겨울 수양회를 위한 기도, 일반 성도들의 소원과 감사의 기도들이 어우러져,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좇아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 정의를 위하여,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기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한다.

◎...지난 주일(9

일) 교육관 6층 청년2부 집회 시간에 갑자기 천장에서 천둥, 우뢰 같은 요란한 소리가 약 15분간 계속되어 오층의 좋은 강의 시간에 신경쓰이게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난방 시동에 따른 부작용으로 밝혀졌는데, 교회 관리국은 건물 관리 차원에서 모든 설비 기기를 점검하여 정숙한 성경 교육 시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제11교구 남성도 모임

제11교구(교구장 김은호 장로, 지도 장경철 목사)는 교구 남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교구의 결속과 가정의 신앙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협력 구역 예배의 부흥을 목적으로 남성도 특별 연합 대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될 이 모임에 제11교구 남성도들은 모두 참석하여, 교구 부흥과 교회 부흥의 기초를 닦는 데 동참합시다.

· 일시 : 2월 23일(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메추라기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시니라"(마6:1)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바울의 기도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엡3:14-21)

에베소서에는 1장과 3장과 6장에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하므로”라며 두번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 바울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실제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23:1)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아낌없이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식간에는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서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무엇을 요청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데, 간구하지 않으므로 항상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

대인들은 속사람을 이성, 양심,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겉사람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겉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속사람이 약하면 안됩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려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엡3:17)

바울은 마치 사랑이라는 흙에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사랑 가운데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있다는 말은 내 속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깊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들이

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3:20)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풍성하게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3:21)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는 송영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영원무궁할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하는 비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 원지(水源地)와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파이프가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이웃 사이가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줄도 모두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줄, 나와 이웃 사이의 사랑의 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인류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 파이프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기도의 대상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엡3:14, 15)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간에는 사랑이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은 언제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아버지는 즉시 자식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가지 자세로 기도합니다.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막11:25)이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이들은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도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는 종려나무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려나무와 같은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엡3:15),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2. 기도의 내용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엡3:16)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크게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름이 생기고 새치가 늘어납니다. 마지막에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점점 부패해가는 것이 인생 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려고 보약을 먹고, 겉사람을 남들에게 잘보이게 하려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인간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엡3:18, 19)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 결집로 빠지고 비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불량 청소년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들이 타락합니까. 왜 세상길로 잡니까. 왜 실망하고 불평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

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 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교회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어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기도 시간에 그 기도의 구절 구절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 때야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열심으로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 대심방기간 특집 ●

심방은 이렇게 하자

중등3부 제공

1 심방의 정의

심방이란 “방문한다, 돌아본다, 권고한다, 간호한다, 돌본다,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심방이란 교회가 격려와 교제의 수단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심방이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권고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에서 유래한다(창 3:9, 16:8, 9; 출 3:16; 마 25:36; 눅 10:38).

2 심방의 목적

첫째, 심방은 성도와 가정의 형편을 파악해서 주님의 양을 잘 먹이기 위함이다(로 21:15). 심방은 의사의 청진기 진찰법과도 흡사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영적 도움을 위하여 실시한다. 즉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돌봐주기 위하여 심방한다(행 7:23). 믿음이 나약한 성도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 격려, 권면하고 신앙심을 양양하기 위하여 심방한다(행 11:23, 14:22). 또한 심방은 초신자나 장기 결석 성도들이 신앙 훈련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기 위하여 실시한다(마 25:36; 약 1:27). 그리고 심방은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3 심방자의 자세

첫째,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휴대한다.

둘째, 어린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을 품는다(눅 15:3~7).

셋째, 충성된 종의 심정, 즉 섬기는 자세가 요구된다(요 21).

넷째, 피심방자인 학생과 학생가정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 한다(요 3:1:2).

다섯째, 피심방자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언제나 예의바르고 교양 있는 태도가 필요하며 복장과 언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4 심방을 위한 준비

첫째, 기도로 준비한다.

적어도 한 주일은 심방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한다. 심방 예배와 피심방자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말씀과 심방자의 건강, 성도의 따뜻한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기도한다.

둘째, 피심방자와 사전에 심방 일시와 장소를 약속한다. 심방 기간과 장소를 신중하게 정하도록 하고 피심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셋째, 교적카드나 생활기록카드를 보고 미리 가정 형편을 살핀 후, 적당한 성구와 찬송과 말씀을 준비한다.

5 심방의 실제 요령

첫째, 피심방자의 부모에게 심방 목적을 알리고 안내를 받는다.

둘째, 방 안으로 안내되면 가능한 출입문을 마주보고 앉는다.

셋째, 가능하면 다른 식구들도 불러 함께 예배를 드린다.

넷째, 심방 예배는 묵도, 찬송, 말씀, 기도, 주기도문 순으로 하되, 말씀은 권면, 위로, 격려, 칭찬, 축복의 내용으로 준비하고 기도는 주님의 은혜와 그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비는 내용으로 한다.

다섯째, 예배가 끝난 후 심방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한다.

여섯째, 대화는 가정 생활, 문제 등 피심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일곱째, 대화의 진전에 따라 적당 시간 대화를 나눈 후 일어선다.

여덟째, 심방을 마치고 나올 때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공손하고 정중하게 인사한다.

“저희가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촛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 하더라”(눅 10:38)

성경연구원 강의 일정

◆ 제36기 교사양성부

· 시간 : 주일반: 오후 12시 30분~2시 20분 화요일반: 저녁 7시~8시 50분

3	8	10	영적 성장의 방법(송태근 목사)
	15	17	신앙과 윤리(윤용규 목사), 사회 생활과 교회 생활(김학진 목사)
	22	24	장로교회사(최인근 목사)
	29	31	교회론(김창수 목사)
4	5	7	신약개설(김해균 목사)
	12	14	구약개설(김성윤 목사)
	19	21	종파와 이단(한경소 목사)
	26	28	성령의 은사와 봉사(이조웅 목사)
5	3	5	성경의 영감성과 필요성(신표근 목사)
	10	12	성경 공부 방법과 실제(김양홍 목사)
	17	19	교회학교 실습

◆ 제6기 찬양대원 양성부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3	9	교회일꾼의 자격(최인근 목사), 예배와 찬양(윤용규 목사)
	16	시편연구(송태근 목사), 찬양과 신앙(김학진 목사)
	23	시편연구(송태근 목사), 음악 이론(이귀자 교수)
	30	시편연구(송태근 목사), 교회 음악 문헌(백금옥 교수)
4	6	시편연구(송태근 목사), 총현 찬양대의 비전(이관섭 교수)
	13	영적 친제와 성장(이조웅 목사)
	20	은사와 봉사(김해균 목사)
	27	합창 호흡 및 발성(조신욱 선생)
5	4	합창 워크샵(김영준 선생)
	11	교회론(김창수 목사)

◆ 주간성경공부

화	크로스웨이(신약)	이조웅 목사	오전 10시~11시 10분
	열왕기하	김찬곤 목사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요한복음	김창수 목사	저녁 7시~8시 10분
	사무엘하	한경소 목사	저녁 8시 20분~9시 30분
수	창세기	송태근 목사	오후 1시 30분~2시 40분
	갈라디아서(일어번)	심길용 목사	오후 1시 30분~2시 40분
목	히브리서	김양홍 목사	오전 10시~11시 10분
	디모데전서	최인근 목사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마태복음	김학진 목사	저녁 7시~8시 10분
	골로새서	이흥성 목사	저녁 8시 20분~9시 30분
금	크로스웨이(신구약개론)	신성종 목사	새벽 6시~6시 50분

장로칼럼

선한 청기지처럼



손동운 장로
(교구위원장)

금년 새해를 하락하시며 작년에도 불충했던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맡겨주신 직분에 금년만은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은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교역자, 장로를 필두로 모든 직분자들이 청기지로서 단기수련회를 받았다.

청지기란 주인을 대리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청기지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되신 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분의 뜻에 따라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세움을 받아 수행하며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리하는 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우리의 것인 양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소유하고 처리하려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교만과 독선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불평과 폭력이 난무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과 특권 의식이 득세하고 사치와 낭비가 심하고 허영과 쾌락과 방탕에 빠져 자신마저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욕심을 채우기에 혈안이 된 모습들을 수 없이 보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청기지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다. 위탁이란 아주 준 것이 아니고 다만 잠시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기에 언제가 기한이 되면 주인이 도로 찾아간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육신까지도 찾아가시며 결산을 위해서 부로셀 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야곱과 헤라게 예멘 동산에서 풀려난 것도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며 잘 다스려야 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안목의 잘못을 따라간 결과가 아니겠는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아니될 것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은 어렵고 하기도 싫거니와 해서는 아니될 것은 재미도 있고 해가 쉬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주정을 돌보면서 구역을 살피며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 하는 것이나, 가르치며 안내하고 권양하는 것이나, 차량 정리하고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

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일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을 확대하거나 생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과소비 하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께 하듯 함을 다하여 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를 대신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장로 선거가 있는 날이다. 믿음과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선출되어 주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봉사에 충성하며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목회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제 “사람을 강권하여 데라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 앞에서 앞만 무한한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는 착하고 충성된 청기지가 되도록 과채 마음속 깊이 다짐하자.

다음호 칼럼은 강은원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1. 서론

충현교회는 소위 강남의 문화 권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강남에는 속칭 굴지의 대형 교회들이 세대의 변천에 따라서 모여들고 있다. 대형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 중 충현교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강남의 몇몇 대형 교회 중에서 충현교회의 연령 분포가 가장 고령화되어 있다. 강남의 다른 대형 교회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약점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강점일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란 연세 드시고 신앙의 경륜이 많으신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충현교회가 강남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 이처럼 연령 분포가 고령화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 강남에서 개척을 하고 성장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연령 자체도 젊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강북에서 이전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10여년의

시간이 어느덧 흘렀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연령 분포가 사실상 고령의 것이다. 고령화되었다는 말은 다른 젊은 교회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강남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연령의

▶특별기고▶

30대 크리스찬에게 바란다

송태근 목사(장년1부 지도)

분포가 아주 고령 형편이다. 이것은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크다는 교회의 요람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내린 작은 결론이다.

2. 본론

그래서 이제, 나는 충현교회의 30대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바른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 교회의 프로그램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장년층에 고정되어 있다. 오늘날 교회의 교회학교 형편을 보면 학년이 올라 갈수록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의

암담한 장래를 눈 앞의 불을 보듯 예견하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훈련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훈련하고 교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과감히 물질로도 투자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헌신된 교역자들에게도 과감히 재량권을 주고 뒷바침하는 풍토가 교회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교회

의 앞날은 이들의 안목과 비전, 그리고 훈련된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동양적 윤리관의 부모 밑에서 교육받은 이 젊은 세대는 또한 급 성장한 서구 문명의 상황과 부딪

인가?를 냉정히 자문하고 혹독히 준비해야 한다. 이럴 때에,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실 것이다.

3. 결론

매주일이면 교육관이 가득히 메워지고, 오르내리는 내일의 세대들을 볼 때마다 한번씩이라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충현의 30대 성도들이여, 즐거운 훈련의 현장을 찾아서 교육관 407호의 문을 두드려보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스타일과 질이 정리되고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과 한국 교회의 앞날이 바로 이 현장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 낮 12시 30분 교육관 407호에서 비전 있는 내일을 함께 준비하자.

충현의 모든 30대는 교육관 407호!

청년2부 수양회 20일부터 개최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김정우 목사)는 오는 2월 20일(목)부터 23일(주일)까지 교육관 109호에서 수양회를 개최한다.

김정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수양회는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9일부터 청년3부 겨울수양회 실시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는 오는 2월 19일(수)부터 23일(주일)까지 겨울 수양회를 실시한다.

이 수양회는 베다니홀에서 김해규 목사, 정기봉 목사, 정홍식 집사를 강사로 청빙하여 "땅 끝까지 품고 복음화 하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청년들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교회학교 겨울 수양회 일정

교육위원회는 충현의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양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중등1, 2, 3부, 고등부, 대학부, 예비대부, 장년1부가 수양회를 마쳤고, 앞으로 영아부 등 여러 부서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수양회를 계획할 예정이다.

◆일정

부서	일자	주제	장소	강사
영아부	2.24.25	깨어 있으라	야벳홀	이건숙, 정연희
유치부	2.24~26	예수님 언제 오세요	교201, 205, 베다니홀	김정자
초등1부	2.24~26	예수님 사랑해요	교212	김필수
초등2부	2.24~26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	교314	정갑신
초등3부	2.24~26	구원받은 생활	교307	윤삼중
초등4부	2.24~26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교407, 514	장상기
초등5부	2.24~26	화명을 전하는 삶	교414	정창욱
초등6부	2.24~26	지혜를 얻은 자	교507	장경철
청년1부	3.9, 10	예수를 닮는 청년이 되자	충현기도원	김해규, 김정우, 김찬곤
사랑부	2.25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자	교107	이홍성

서만수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세계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3일 일시 귀국하여 그간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충현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지난 1월 29일 일지로 출국하였다.

서 선교사는 1971년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한다는 믿음 하 나만을 붙들고 지구촌의 오지 인도네시아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 외길"만을 고수해왔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동역자라고는 오직 사모 정소라 선교사 밖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박종

형 선교사, 김성식 선교사, 김철구 선교사와 함께 복음 전파에 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정글 지대여서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에 비해 어려움이 컸다. 예를 들어 교통,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부흥회 하나를 개최하기 위해서도 말을 타고 정글 속에 있는 마을 하나 하나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참석 확답을 받아야만 했다. 또 무속 신앙의 뿌리가 깊히 박힌 토착민들에게, 하나의 신종 종교로 밖에 인식되어 있지 않은 기독교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바르게 전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년까지 순회 집회를 계속하면서 65개의 개척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결과라면서 선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회 개척에 혼신을 다 쏟아온 그가 느낀 점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하는 것보다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 자 민족 복음화에 헌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신학교 건립 사업이다. 지금은 서 선교사가 세운 9개의 신학교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목회자로 양육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부둥켜 안고 - 20년간 선교 외길 걸어온 서만수 선교사 -

선교 초창기에는 물론이려니와 강산이 두번쯤은 바뀌었음직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서 선교사를 쓰러뜨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서 선교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보호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 매달려 문제의 해결함을 받으며 말씀 전파에 더욱 매진한다. 서 선교사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아팠으나 모두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오지에서의 선교 사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지인들에 대한 말씀 전파가 한결 같은 비전이라면서 이를 위해 2년 내에 신 학교가 교사(校舍), 도서관을 구비하여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선교 실무자로서 조언을 부탁하자, "선교를 위해 정확한 정보 수집, 언어 훈련, 문화적 적응 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부차적 문제들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

를 어떤 곳으로 파송하셔서 사용하실런지를 하나님과 깊이 상의하면서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도시 선교를 하든, 정글 선교를 하든, 공산권 선교를 하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모든 역경을 딛고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해주었다. 아울러 본국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도들은 선교 후원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선교 동역자"들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또 자기 민족만을 위해 사는 것도 힘든데,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오지인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는 서 선교사와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